

e스포츠 | 아시안게임 통해 '정식 스포츠화' 쟁걸음

“미·중 천문학적 투자...한국은 맨파워로 맞붙”

'젊은이 놀이'서 AG 통해 스포츠로 인식 전환 2022년 항저우대회 정식종목...올림픽도 논의 미국 메이저리그와 유럽 프로축구단도 팀 창설

대한민국 e스포츠 대표팀이 리그오브레전드(LoL)에서 첫 아시안게임 메달을 목에 걸었다. 젊은이의 놀이로 취급받던 e스포츠가 정식 스포츠화에 큰 걸음을 내딛은 순간이다.

e스포츠는 1990년대 후반 생겨난 문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문 방송사 설립, 임용환 같은 슈퍼스타의 등장, 기업팀 창단 등으로 빠르게 체계화됐다. 이는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모델로 자리잡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한국 e스포츠 시장 규모는 약 830억원으로 스포츠 시장 규모는 축구와 야구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e스포츠도 스포츠”라는 인식 전환의 큰 계기가 됐다. e스포츠의 스포츠화는 앞으로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시범종목 채택에 이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아직 유보적 입장이 강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2024년 파리올림픽 e스포츠 시범종목 채택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스포츠 붐을 일으킨 주역이었던 스타크래프트의 임요환은 “e스포츠를 올림픽에서 보는 게 꿈이었다”며 “이제 더 이상 꿈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대행은 “e스포츠가 스포츠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해 여러 시각이 있고, 의견도 팽팽하다”면서 “올림픽 종목 논의가 시작됐다는 움직임만으로도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시범종목으로 경기를 치르면서 정식 스포츠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리그오브레전드(LoL)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브리타마 아레나에서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 아시아e스포츠연맹

● '생태계 확장'과 인프라 구축 절실

하지만 그동안 e스포츠의 붐을 주도한 한국이 앞으로 이 분야의 강국으로 위상을 유지하려면 천문학적 투자를 앞세운 미국과 중국의 공세를 이겨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미국의 한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2020년 세계 e스포츠 시장규모는 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부터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와 유럽축구 등 스포츠 구단들이 e스포츠팀 창단 등 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업계에선 이런 경쟁구도에서 한국이 가진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 김 사무총장 대행은 “한국은 선수의 실력과 노하우로 최고의 위치를 지켜왔지만, 산업적으로는 북미나 중국에 뒤처진 지 오래다”며 “규모의 경제를 따라잡기 힘들지만 장점인 맨파워를 탄탄하게 가져가도록 야마추어 생태계 확장과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성희 한국외대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교수는 “정부와 유관단체는 e스포츠가 미래스포츠라는 인식을 가지고 스포츠로서 위상을 확립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아울러 민간과 함께 게임 지적재산권(IP)을 개발해 게임 저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기자 dionys@donga.com

현대차 울산공장, 연간 1만 가구 사용 전력 생산

야적장 등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축

현대자동차가 울산시,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현대자동차는 30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울산시, 한국수력원자력, 현대캐피탈과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다자간 협약(MOU)을 체결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울산공장 내 수출차 야적장과 주행시험장 등 약 26만4463㎡의 부지에 설치한다. 완성차 대기장 등 기존 용도를 유지하면서 지붕 형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부지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환경훼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공사를 거쳐 27MW급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30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 협약식. 사진제공 | 현대차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완공되면 연간 3500만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1만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원유 8000톤의 수입대체 효과와 연간 1만6500 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르노삼성,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획득



르노삼성자동차는 '한불 공동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사진)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公道 시험 주행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율주행차를 통해 혼잡한 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자의 가감속 및 자동 조향 주행을 지원하는 '혼잡주행 지원시스템'(Traffic Jam Assist)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사이트 레이더, 카메라 등 보급형 센서 시스템으로 구성된 차량으로 시속 50km 미만의 속도로 혼잡한 도로에서 차선 유지,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등의 기능을 시험할 예정이다.

NS홈쇼핑-충청남도, 유통활성화 업무협약

NS홈쇼핑과 충청남도가 29일 충남 아산 캠코인재원에서 수산물 가공 식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NS홈쇼핑은 충청남도 수산 가공식품 판로 개척과 유통 활성화를 돕는다. 또 충청남도는 우수한 수산물 가공 식품을 발굴해 TV홈쇼핑, 온라인몰 판매를 위한 수산 가공식품 상품화에 협조하기로 했다.

정정욱 기자

부고

이만수(전 SK 와이번스 감독)씨 모친상
◇장삼순씨 별세, 이만수(헬프코퍼레이션 이사장·전 SK 와이번스 감독)씨 모친상=30일, 서울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9월 1일 오전 6시 30분

31일(금) TV 프로그램 9월 1일(토)

Table with TV program schedules for 31st August and 1st September. Columns include Channel, Time, and Program Name. Channels listed include KBS1, KBS2, MBC, SBS, and others.

날씨와 생활

31일(금) 해돋이 06:01 해질 19:03 달돋이 21:49 달질 10:13

Weather forecast table for 31st August and 1st September. Includes temperature and weather icons for various cities like Seoul, Gyeongju, and Jeonju.

Regional weather forecast table for 31st August and 1st September. Lists weather conditions for mountain and sea areas across different provinces.

1일(토) 해돋이 06:02 해질 19:02 달돋이 22:24 달질 11:15

Weather forecast table for 1st September. Includes temperature and weather icons for various cities.

Regional weather forecast table for 1st September. Lists weather conditions for mountain and sea areas.

2일(일) 해돋이 06:03 해질 19:00 달돋이 23:03 달질 12:18

Weather forecast table for 2nd September. Includes temperature and weather icons for various cities.

Regional weather forecast table for 2nd September. Lists weather conditions for mountain and sea areas.

스포츠신문 발행부수 유료부수 공인 1위 스포츠동아는 성인광고를 실시 않습니다

스포츠동아 대표전화 02 2020 0114

Staff list table for Sports Donga, including roles like Publisher, Editor, and Designer.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중랑구 창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sol@donga.com